

보도시점 : 2023. 8. 17.(목) 06:00 이후(8. 17.(목) 석간) / 배포 : 2023. 8. 16.(수)

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 위해 산·학·연 머리 맞댄다

- 8월 17일 ‘Green NCAP 전문가 협의체’ 출범
- 27개 산·학·연·관 협력 통해 자동차 친환경 성능 평가기술 개발 촉진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·학·연·관*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‘Green NCAP 전문가협의체’(이하 ‘협의체’)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*를 개최한다.

* (時/所/參) `23.8.17.(목) 10:30~13:30 / 웨스틴 조선 서울 /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(주재), 자동차·에너지·친환경 정책 관련 산·학·연 전문가 등 44명

-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*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‘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**’(이하 ‘Green NCAP 사업’)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(①연비·온실가스, ②LCA, ③실내공기질)로 구성된다.

* 자동차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, 실내 공기질 등 친환경성 평가·공개하는 제도

** 총사업비 : 250억(23년 25억) / 사업기간 : `23.5.~`26.12. / 책임연구기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

-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,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Green NCAP 사업은 자동차 안전과 함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, 우리나라가 전주기 관점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”이라면서,
 - “논의 결과는 Green NCAP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Green NCAP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드린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 혁 (044-201-3850) 허동혁 (044-201-3853)



□ 제1회 협의체 회의 개요

- (목적) ‘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’ R&D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·자문 및 연구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
- (일시/장소) ‘23.8.17.(목) 10:30~14:00 / 웨스틴 조선 서울
- (참석자) 국토교통부, 자동차안전연구원(주관 연구개발기관),
전문가협의체 분과별 위원 및 과제별 연구담당자

□ 협의체 구성 : 자동차 관련 전문가,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 44명

